

# 요엘서와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18호

Jeff Pippenger

2025-12-25

## 숫자 열여덟

우리는 아브람의 언약을 살피고 있으며, 아직 요엘서 서두의 구절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브람의 예언의 요소를 다루지 않았다. 아브람의 400년 종살이 예언과 바울이 말한 430년이 결합되어 다니엘 12장 11절의 1290년과 일치하는 예언적 구조를 형성한다. 11절의 1290년 예언은 아브람과 바울의 430년 시간선의 오메가 예언 기간이다. 이 진리는 마지막 때에 봉인이 풀리는 것의 한 요소로서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한다.

430년의 오메가 예언과 연결된 '네 세대'라는 상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속박한 나라에게 주어진 유예의 기간을 가리킨다. 모세에게 그것은 이집트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에게는 1798년부터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역사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된 미국은 어린양처럼 시작하여 용처럼 말하게 된다. 어린양의 상징인 요셉은 새로운 바로가 등장하여 종살이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집트의 상대적 평화의 시기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모세 시대에 네 번째 세대에 심판을 받은 나라가 이집트였던 것처럼, 그 나라는 미국이다. 남은 자는 일요일 법령 때 심판을 받는데, 이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문설주에 바른 피로 절정에 이르렀고, 이어 이집트 민족에게는 홍해에서 절정을 맞은 재앙들로 예표되었다. 요셉과 모세는 선한 바로와 악한 바로를 대표하며, 미국의 경우 이는 먼저 어린양, 그다음 용을 의미한다.

사대에 임할 심판에 대한 아브람의 예언에는 은혜의 시한 마감의 점진적이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세에 의해 아브람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집트의 은혜의 시한이 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시한이 다 찬 뒤에도 아모리인들이 자기들의 은혜의 시한을 채울 시간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있어서의 홍해 사건은 미국에 있어서는 일요일 법령에 해당하며, 그 후에는 "지구상의 다른 모든 나라"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인데, 이는 이집트의 은혜의 시한 마감 이후의 아모리인들로 대표된다.

아모리 족속은 아브람의 언약에서 이집트의 강에서 바빌론의 강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구분하는 열 족속 가운데 하나이며,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은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제정된 후 민족으로서 각자의 은혜의 기간을 마감하게 되는 세계의 열방을 대표한다. 아모리 족속은 세상 위에 심판이 마감됨을 나타내는 성경적 상징이며, 그 일은 셋째와 넷째 세대에 일어난다. 홍해는 미국의 은혜의 기간이 끝남을 상징하고, 아모리 족속은 인류의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열방이 점진적으로 그들의 은혜의 기간을 마감해 가는 것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동풍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홍해에서 벌어지는 일요일 법령 위기의 기간을 상징한다.

그러나 아브람의 예언은 미국을 이집트로, 세상을 아모리 족속으로 보는 관점에서 네 번째 세대를 다룰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세대를 '네

번째 세대'로 자리매김한다. 아브람의 세 단계 중 첫 단계에서 '사 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캐낼 수 있는 만큼 캐낸 다음,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17장이고, 세 번째 단계는 물론—22장이다.

다니엘서 12장에는 세 가지 예언적 기간이 언급되며, 그것들은 모두 1844년에 종결된 예언의 때를 가리킨다. 그 세 기간은 말세에 봉인이 풀리며,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지식의 증가를 나타낸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는 7절에서 그 세 예언적 기간 중 첫째를 제시하시며, 그렇게 하심으로 물 위가 아니라 땅과 바다 위에 서 있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와 자신을 일치시키신다.

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던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시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더 이상 지체함이 없으리라 하니라. 요한계시록 10:5, 6.

12장 7절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도 영원히 살아 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한다.

또 나는 강물 위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살아 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라.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지게 하는 일을 마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다니엘 12:7.

우리는 영감으로 다니엘서에 있는 동일한 예언의 계통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밀러주의자들의 이해에 따르면, 이 두 묘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평행한 서술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작은 책을 가진 천사로서의 그리스도가 1844년에 예언적 시간의 적용이 끝났음을 지적하고, 다니엘서에서는 베옷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미국에서 일요일 법이 도래할 때 다니엘의 마지막 이상에 나타난 모든 놀라운 일들이 마쳐질 것임을 지적한다. 그 거룩한 역사, 즉 일요일 법에 앞서고 그것으로 절정을 이루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1260이라는 상징으로 표현된 기간 동안 흠어지게 되어 있었다. 일요일 법에 앞서는 그 흠어짐의 기간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제시되는데,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죽음을 당해 사흘 반 동안 거리에서 죽은 채로 있게 되며, 이는 1260을 상징한다.

7절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흠어지는 일이 그 삼일 반을 마치면,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기이한 일들'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밝힌다. 우리는 지난 글을 스가랴 3장에 대한 화이트 여사의 논평으로 마무리했다. 첫 문장은 이렇게 말한다. "스가랴의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환상은 위대한 속죄의 날의 종결 장면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경험에 특별히 강하게 적용된다." 그 장에서, 그리고 그 장에 대한 화이트 여사의 영감적인 주석에서도, 14만 4천은 "기이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다. 일요일 법으로 완결되는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의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과 관련된 "기이한 일들"이다.

다니엘서 12장은 말세에 14만 4천을 인치는 빛을 제공한다. 그 빛은 세 개의 예언적 기간으로 나타나며, 그 세 기간은 밀러주의 운동의 역사 속에서 모두 진리로 식별되고 확립되었다. 그 세 기간은 세 절에 제시되며, 진리의 구조를 떠받치는 세 기둥이다.

진리의 구조는 세 단계의 과정으로 지탱된다. 그 세 단계의 과정은 예언적 시간을 제시하는 세 절을 통해 아홉 절(4-12절)의 본문 안에서 표현된다. 그 세 예언적 기간을 기초적인 밀러주의적 이해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시간의 요소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밀러주의적 이해와 일치하도록 정의된 세 개의 상징적 기간이 도출된다.

세 기간은 '예언이 봉해졌다가 다시 풀리는 과정'을 규정하고, 고전적인 성경의 삼중 시험 과정에 대한 묘사를 포함하는 바로 그 성경 본문 안에 자리하고 있다. 다니엘에게 그의 책을 봉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아홉 절은 바로 그 세 기간이 제시된 절들이며, 또한 그 아홉 절에서는 진리가 봉인에서 풀릴 때 이루어지는 정결의 과정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연단을 받는다"로 표현되어 있다. 그 세 절에 나타난 세 기간은 지식의 증가, 끝의 때, 마지막 날들이며,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최종 시험과 인침의 과정을 나타낸다. 그 역사 속에서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는 상징적 '기이한 일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단락을 다시 읽어 주십시오.

아홉 절로 된 본문 가운데 세 절에서 언급되는 세 시기는 다니엘서의 절정을 나타내며, 거기서 나타나는 절정은 내적 예언의 흐름의 절정이다. 그것은 사람의 손을 쓰지 않고 산에서 돌이 '잘려' 나오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로, 곧 남은 자의 이야기다. 그 내적 흐름은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서 나타나며, 외적 예언의 흐름의 절정은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구절들과 다니엘서 12장의 처음 몇 절에 있다.

그 세 기간은 또한 올라이 강과 히데겔 강의 증언에 관한 환상들의 절정이며, 그 세 절에는 언약의 시간 예언의 절정적 성취를 나타내는 예언적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예언은 아브람과 바울을 증인으로 제시한다. 예수께서는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7절에서 물 위를 걸으신다. 11절에서는 두 음성, 곧 그리스도의 음성이기도 한 아브람과 바울이 증언하기 위해 선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십사만 사천은 처녀들이며, 처녀들은 열 처녀의 비유를 경험하고, 12절의 복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다. 그 비유에서 기다리며 '복 있는' 자들은 문이 닫힐 때 혼인에 들어가도록 해 주는 예복을 받는 자들이다.

7절에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며, 그것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베드로는 믿기로 결심하고 걸어가기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베드로는 종종 두 부류 모두를 상징하므로, 그의 심판의 때가 이르자 영광은 다시 두려움으로 바뀐다. 7절에 위치한 첫 번째 시기는 첫째 천사의 메시지를 나타낸다. 예수님은 물 위에 계시는데, 이는 두려움과 첫째 천사를 상징한다. 이어서 예수님은 일요일 법령의 심판에 앞서 자신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실 시기를 지적하신다. 세 천사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7절 안에 있다. 왜냐하면 7절은 세 천사를 대표하는 세 구절 중 첫 번째이기 때문이다.

열한 절은 아브람과 바울의 알파적 음성들에 대한 오메가적 증언으로서 '이중화'를 제공한다. 그들의 "이중화된" 음성들은 합쳐져 언약의 시간 예언을 제시하며, 열한 절은 1798년에 바벨론의 몰락으로 끝나는 예언적 기간을 식별함으로써 오메가로서 그 예언을 성취하고, 이로써 말세에 미가엘이 일어설 때의 바벨론의 몰락을 예표한다. 열한 절에서는 예언자들의 이중화가 나타나고 바벨론의 두 번의 몰락을 대표하는 한 기간이 제시되며, 따라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라고 선포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대표한다.

7절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11절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며, 12절(다니엘 12\*12, 곧 다니엘 144)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별에 관한 것으로, 그 구별은 심판의 위기에서 품성이 드러남으로 마무리되는 심판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12절은 세상이 두 계급으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밝혀 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그 분할을 셋째 천사가 외적으로 묘사한 것에 상응하는 것은 12절에 나타난 셋째 천사의 내적 구분이다. 7절, 11절, 12절은 세 천사의 기별이고, 그 구절들은 말세에 봉인이 풀려 드러나는 빛이다. 이 세 구절이 말세에 봉인이 풀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과 부합한다.

그리스도는 10장에서 힘센 천사로서, 또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사자'처럼 부르짖었고, 그의 포효로 일곱 우레가 울려 퍼졌으며 그것들은 봉해졌다. 이는 다니엘서 10장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병행 본문이다. 그러므로 12장의 세 기간은 또한 요한계시록 10장의 일곱 우레이다.

"일곱 우레"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곱 우레"의 주요한 상징은,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의 개요"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14만 4천의 역사 속에서 "그 순서대로 밝혀질" "미래의 사건들" 가운데 반복된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곱 우레"는 알파와 오메가의 상징이다. 그는 또한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기초와 성전, 모퉁잇돌과 머릿돌—곧 일곱 우레이시다.

다니엘서 12장의 세 상징적 기간의 빛은 일곱 우레의 빛과 일치해야 하는데, 이는 둘이 동일한 예언적 계열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기간에서 그리스도는 두 손을 하늘로 드시며,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한 손을 드시는 것과 같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그분의 손이 예언적 시간의 적용이 끝났음을 상징하여, 예언적 '시간' 기간에서 단순한 예언적 기간으로의 전환을 표시한다. 밀러파가 사용하던 주요 예언 해석 규칙의 그 전환은 그리스도 시대에 문자에서 영으로의 중대한 전환으로 예표되었다.

사도 바울은 택하신 백성의 예언적 계보와 연결된 중요한 예언적 원칙을 세우도록 일으켜 세워졌다. 영적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언약 자체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예언적 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 예언적 원칙은 주로 바울의 글을 통해 확립되었는데, 이 점에서 그는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예표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1844년에 시간에 대한 예언적 적용을 변화시키고 끝내셨다.

인류와의 언약은 무지개로 상징되며, 노아의 방주는 홍수 전후에 분명히 규정된 선민이 없던 한 시기를 상징한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예언적 관계에 중대하고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언약사에서 큰 전환을 의미했으며, 그로써 바울 시대의 문자에서 영으로의 큰 전환을 예표했을 뿐 아니라, 1844년에 있었던 예언 해석에서 시간 적용에서 비시간적 적용으로의 전환도 예표했다.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신 언약에서 첫 번째 전환은 에덴동산이었고, 두드러진 변화는 생명나무에 대한 제한이었으며 또한 의복의 변화, 곧 영적 빛에서 실제 양가죽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언약 역사에서 다음의 중대한 전환은 홍수이며, 이는 첫 번째 주요 언약 전환에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대표한다. 그다음에는 아브람과 함께 선택된 백성으로의 전환이 있었고, 그것은 모세로 이어졌는데, 모세는 하루가 1년을 상징한다는

예언의 원리를 도입하였다. 그 원리는 1844년까지 유효하며, 그때 또 하나의 중대한 언약 전환이 있었다. 언약 역사의 위대한 시기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어떤 원리에서 중대한 전환이 있다. 십사만 사천의 역사 동안의 그 전환은 알파와 오메가는 진리라는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끝이 항상 시작으로 예증된다는 원리다. 그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에 덧붙여, 히브리어 "진리"라는 단어의 삼중 구조가 있다.

남은 무리의 역사에서의 주요한 예언적 전환은 각 주요 언약의 역사 속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며, 다른 진리의 선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엘리야김 위에 놓인 '열쇠'는 마태복음 16장에서 파니움에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열쇠와 동일하다. 그 열쇠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졌으며, 윌리엄 밀러가 그 열쇠를 받아 모세의 역사 속에서 모세가 기록해 둔, 그리고 밀러라이트의 역사를 예표했던 일일일년 원리와 자신을 연결할 수 있었다. 밀러가 모세의 예언과 연결된 것은 바울이 아브람의 예언과 연결된 것으로 표상되었다. 그리고 밀러가 모세와 연결되어야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두 언약을 서로 묶기 위해, 갈대상자에서 구원받은 모세의 구원이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에덴에서 시작된 예언 적용의 전환들은 최종 언약 백성인 14만4천의 역사 속에서 중대한 예언의 빛의 계시가 드러남을 보여 준다. 나는 그 주요한 예언적 전환이 일곱 우레로 표상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다니엘 12장의 세 기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진리의 세 단계 구조 위에 선 위에 선을 더하는 적용을 하고 그 위에 알파와 오메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만 비로소 인식된다.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선언에 바로 앞선 구절들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일곱 천둥을 소개하셨는데, 그것들은 다니엘 12장의 진리들과 마찬가지로 봉함되었다. 12장에서 양손을 들어 올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의 문맥은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리는 것이며, 계시록 10장에서 사자이신 그리스도의 문맥은 일곱 천둥을 봉함하는 것이다. 화이트 자매는 일곱 천둥의 봉함을 다니엘서의 봉함과 일치시킨다.

"이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한 후에, 작은 책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명령이 요한에게 내려진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을 인봉하라.' 이것들은 장차 일어날 사건들과 관련되며, 그것들은 그 차례를 따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7권, 971.

일곱 천둥은 요한계시록 10장과 예언의 신, 그리고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 의해 규정되며, 이는 십사만 사천의 역사에서 반복된다. 같은 대목에서 이렇게 말한다. "일곱 천둥으로 표현된, 요한에게 주어진 특별한 빛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서 전개될 사건들의 윤곽을 제시한 것이었다. 백성들이 이 일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으니, 그들의 믿음이 반드시 시험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가장 놀랍고 진보된 진리들이 선포될 것이었다." 밀러주의자들은 두 차례의 실망을 맞게 되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들의 이해 부족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 밀러주의자들은 어떤 "진보된 진리"도 예상하지 않았으니, 다시 말해 언약의 역사에서 어떤 "중대한 예언적 전환"도 기대하지 않았다.

밀러주의자들이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지만, 십사만 사천은 같은 역사로 시험을 받는다. 그러나 그 시험은 역사를 순진하게 오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알아야 할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진다. 같은 시험이되, 다만 방향이 뒤바뀐 것이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요한은 무엇보다 먼저 십사만 사천을 대표하고, 둘째로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 밀러주의 운동을 대표한다. 이는 요한이 작은 책을 먹기 전에 그것이 처음에는 달고 그다음에는 쓰게 될 것임을 미리 통보받는 데서 알 수 있다. 그 의미를 밀러주의자들이 아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지만, 요한은 밀러주의자들이 작은 책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아는 한 백성을 대표한다.

내가 그 천사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가져다가 먹어 버리라. 그것이 네 배에는 쓰게 하겠으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라. 그러나 내가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니라. 요한계시록 10:9, 10.

요한에게는 10장에 나타난 역사, 곧 1840년에서 1844년에 이르기까지의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경험이 미리 예고된다. 그 경험은 9절과 10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며, 2절부터 4절에서도 또한 뚜렷이 확인된다.

그는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을 들고 있었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디뎠다. 그는 사자가 포효할 때처럼 큰 소리로 외쳤고, 그가 외치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냈다.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었을 때, 내가 기록하려 하였으나 하늘에서 내게 이르는 음성이 들리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을 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였다. 요한계시록 10:2-4.

"일곱 우레"는 첫째와 둘째 천사 아래에서 일어날 사건들의 개요와, 그 순서대로 드러나게 될 장래의 사건들을 나타낸다. "일곱 우레"는 밀러주의자들의 역사가 십사만 사천의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는 진리와, 1798년 종말의 때와 그 이후에 봉함이 풀린 진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말세에 진리가 개봉되는 일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예수님은 다니엘서 12장의 예수님과 일치한다. 두 본문 모두에서 말세에 있을 시험하는 진리의 봉함과 개봉이 제시된다.

일부는 7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11절과 12절에서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세 구절 모두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음성이며, 12장의 세 예언 기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분은 진리의 구조 속에서 그 세 기간을 제시하신다. 세 기간 모두 봉해져 하나의 삼중 상징을 이룬다.

7절은 "기이한 일들"의 마침을 다루며, 지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14만4천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들을 인치시는 일을 그분의 마지막 사역으로 규정한다. 첫째 절은 "기이한 일들"을 지목하고, 세 절 중 마지막 절은 기다림과 첫 실망을 겪은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밝힘으로써 그 "기이한 일들"을 또한 규정한다. 가운데 기간은 일요법령 위기 동안 인류의 반역을 드러내는 동시에, 일요법령으로 이어지는 시기를 14만4천을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규정한다. 모든 절은 "마지막 날들"에 다니엘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임할지"를 직접적으로 밝힌다. 세 절 모두 14만4천의 정결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첫째 기간은 셋째 기간과 일치하며, 가운데 기간은 온 세상이 아마겟돈을 향해 행진하는

가운데 벌이는 반역을 나타낸다.

그 세 기간이 또한 일곱 우레를 의미한다면, 그 세 구절은 "그 순서대로 [밝혀질] 미래의 사건들"을 밝혀야 하며, 그 "미래의 사건들"은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첫째와 둘째 천사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개요"와 일치할 것이다. 이 운동이 받아들인 몇 가지 진리는 선구자들의 이해와 분명히 다르지만, 그 모든 진리는 선구자들의 이해와 일치한다. 밀러파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언 해석에는 중대한 전환이 있었다. 일일일년 원칙은 대표적인 예이지만, 다른 것들도 있다. 중대한 예언적 전환의 한 예는 일곱 우레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요한은 10장의 마지막 절에서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어 10장의 역사가 밀러주의자들의 운동과 14만 4천 모두를 대표한다는 점이 강조된 뒤, 성전을 측량할 막대기를 받았으나 뜯은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가 주어졌고, 천사가 서서 이르되,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의 뜯은 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음이라.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한계시록 11:1, 2.

1844년 이후 성전을 측량할 때, 요한은 뜯로 상징되는 이방인들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1844년에 주어진 이 상징은 하나님께서 막 새 언약의 신부를 택하셨음을 가리켰고, 그분의 신부와 뜯 사이에 구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었다. 화이트 자매는 뜯이 이방인을, 성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말한다. The Desire of Ages의 The Outer Court 장을 읽어 보라.

요한은 1844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밀러파를 묘사하고 있다. 달콤쌉싸름한 메시지를 막 경험한 밀러파와, 이방인으로 묘사된 기독교를 표방하는 세계의 나머지 사이에는 구별이 두어졌다.

1840년부터 첫 번째 실망에 이르기까지 기초가 놓였고, 한밤중의 외침이 선포되는 동안 성전이 완공되었다. 그 후 대실망이 일어났고, 요한은 일어나 측량하되 이방인들은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요한은 심판의 개시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영감은 그 구절들에서 요한의 측량을 조사심판의 상징으로 적용한다. 우리가 방금 제시한, 측량의 상징으로서의 요한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인 재림교회의 이해와 일치하지만, 이 운동에서는 그 상징을 이해하는 데 큰 변화가 있었다.

밀러파의 이해와 일치하게, 우리는 요한 10장에서 묘사한 밀러파의 역사 안에 14만 4천이 될 병행하는 운동에 대한 예언도 들어 있음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밀러파 역사를 측량하고 '이방인의 때'를 제외하면, 요한이 측량하고 있던 바로 그 성전을 볼 수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2520년 기간의 예언 가운데 하나가 1798년에, 다른 하나가 1844년에 끝난다는 것을 보았고,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밀러파의 성전을 세우신 46년의 기간이 드러났다. 요한은 바깥뜯을 이방인으로 규정했으며, 예언적으로 "이방인의 때"가 있다.

그들이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 가운데로 사로잡혀 가리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누가복음 21:24.

‘이방인의 때들’은 복수형이며, 문자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모두 짓밟힌 두 시기를 가리킨다. 이교와 그 뒤를 이은 교황주의에 의한 두 번의 유린 중 마지막 것은 1798년에 끝났다. 무엇이 주장되든 상관없이, ‘이방인의 때들’은 첫째 천사의 도래와 함께 1798년에 끝났다. 요한은 1798년에 측량을 시작해야 했으며, 그 이전은 아니었다. 그는 1844년의 역사 속에 놓였으므로, 1798년에 끝난 기간을 생략하는 것은 뜯을 생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의 사자에 의해 밀러파의 성전이 세워졌던 46년을 드러내게 된다. 이 적용에서 많은 연관된 진리들이 도출되지만, 나는 이것을 단지 선구자들의 이해와는 다른 빛의 한 예로 사용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본래의 진리들과 모순되지 않으며, 더 이상 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특정한 진리는 9·11 이전에도 인식되었지만, 9·11 이후에야 비로소 깊이 확립되었다. 요한의 성전 측량에 대한 진리는 “일곱 우레”와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같은 본문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12장의 “기이한 일들”이 성취되는 시기까지 봉해져 있던 “일곱 우레”의 적용에 관한 진리가 있다. 2023년 7월 이후에 봉함이 풀린 “일곱 우레”의 적용은 다니엘 12장의 세 구절과 완벽하게 일치하며, 아니, 심오하게 그것을 보완한다고도 할 수 있다.

화이트 자매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관계를 설명할 때 compliment가 아니라 complement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완전하게 하다’를 뜻하는 complement는 두 예언서가 서로에게 하는 일이다. 2023년 7월 이후 다니엘서 12장에서 인봉이 풀릴 때, 일곱 우레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완전하게 한다. 일곱 우레를 여는 것은 진리의 구조와 결합된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이다.

이방인의 “때”는 1798년에 성취되었으며, 이는 이상승배가, 이어서 교황권이 성소와 군대를 짓밟았던 1260년의 두 기간을 나타낸다. 성전을 측량할 때 우리는 뜯을 제외해야 하며, 그 뜯은 1798년까지 이어지지만 184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오늘날 1260년은 단지 성전과 뜯의 구별을 나타내는 기간을 의미할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7월 18일부터 2023년 7월까지 그 짓밟음이 이루어졌다. 오늘 성전을 측량하는 일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구분을 나타내는 일곱 우레와 결부되어 있으며, 이것이 요한에게 맡겨진 일이다. “우리의 위대한 사업”은 세 천사의 기별을 “결합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전의 언약 역사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고 지금도 매우 드물게만 이루어지는 예언적 사업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방인의 때를 나타내는 뜯을 제외할 때, 우리는 1798년 ‘마지막 때’에 끝난 교황권의 1260년 박해를 제외하는 것이다.

밀러파 역사에서 46년에 걸쳐 세워진 성전은 2023년 7월부터 주일법 직전까지 세워지는 성전을 가리킨다. 그 역사는 일곱 우레의 ‘미래의 사건들’의 기간으로, 그것들은 ‘그 순서대로’ ‘드러날 것이다’이지, ‘드러날 수도 있다’가 아니다.

첫째 천사의 역사와 둘째 천사의 역사를 결합해 보면, 그 역사는 알파의 실망으로 시작하여 오메가의 실망으로 끝남을 알게 된다. 1840년부터 1844년 4월 19일까지의 첫째 천사의 역사 속 예언적 이정표들을, 그때 도착하여 1844년 10월 22일 셋째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된 둘째 천사의 이정표들과 나란히 맞추어 보면, 둘 다 천사의 도착으로

시작하고 천사의 도착으로 끝나는 두 기간이 드러난다. 첫째에서 둘째에 이르는 역사는 둘째에서 셋째에 이르는 역사를 예증한다.

이것이 타당한 적용이라는 예언적 증거는 그 적용의 알파와 오메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함께 적용된 두 개의 평행선에서 두 선의 시작과 끝은 천사의 도착을 가리킨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선 위에 선을 더하여 하나의 선으로 결합하면, 시작은 첫 실망을, 끝은 대실망을 가리킨다. 시작보다 끝이 더 크다고 밝히는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에서도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된다. 알파의 실망이 오메가의 대실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알파와 오메가의 작은 것과 큰 것의 요소를 드러낸다.

우리가 1844년 4월 19일(둘째 천사의 도래로, 이는 1844년 10월 22일의 셋째 천사의 도래로 이어진다)에서 시작하고, 또한 1840년 8월 11일에 시작해 1844년 4월 19일에 끝나는 두 번째 선도 시작할 때, 우리는 1844년 4월 19일의 실망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예언의 선을 결합하여 형성된 예언의 선의 알파이자 오메가임을 발견한다.

그 기간의 끝에는 둘째 천사와 함께 셋째 천사가 이르게 되는데, 이로써 9/11과 요한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의 두 음성을 예표한다. 그 두 음성은 둘째와 셋째 천사의 메시지이며, 그 두 천사는 1844년 10월 22일에 서로 맞닿았고, 두 역사가 줄과 줄을 맞추어 함께 놓일 때 그들은 다시 만난다. 이렇게 함께 모아질 때 그것들은 첫 실망에서 대실망에 이르는 역사를 나타내며, 밀러파 시대 그 역사 한가운데의 이정표는 두 부류의 예배자들이 드러난 엑서터 야영 집회였는데, 이는 비유 속 미련한 처녀들의 반역을 나타내며 그 중간 이정표를 반역으로 규정한다.

일곱 천둥은 줄에 줄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합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를 나타내며, 그래서 14만 4천의 역사 속에서 첫 실망에서 대실망에 이르는 역사를 드러낸다. 그 역사가 예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다니엘 12장에서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다'고 표현된 기별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연구는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지만,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 가운데 말세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다니엘의 묘사만을 다루는 부분을 남겨 두겠습니다. 최초 언급의 법칙의 맥락에서, 1절에서 다니엘은 그 환상을 이해하는 부류에 속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 환상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다니엘에 대한 묘사이며, 마지막 아홉 절은 스물두 번째 날에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삼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던 다니엘에게 한 일이 계시되었으니, 그 일은 참되었으나 정해진 때가 길었다. 그는 그 일을 깨달았고 그 환상을 이해하였다.

그때에 나 다니엘은 온전한 세 이레 동안 슬퍼하였다. 나는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였으며 또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온전한 세 이레가 찰 때까지였다.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큰 강, 곧 히데켈이라 하는 강가에 있었을 때,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와 같은 모습이며 눈은 불의 횃불 같고, 팔과 발은 연마한 놋과 같은 빛을 띠었으며, 그의 말소리는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오직 나 다니엘만 그 환상을 보았으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숨으려고 도망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홀로 남아 이 큰 환상을 보았는데, 내게는 기력이 남아 있지 않았다. 이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안에서 변하여 썩음이 되었고, 내가 기력을 전혀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말소리를 들었다.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졌다. 보라, 한 손이 내게 닿아 나를 무릎과 두 손바닥을 짚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달으라, 그리고 일어서라. 이는 내가 이제 네게로 보내심을 받았음이라.

그가 이 말을 내게 하였을 때, 나는 떨며 섰다. 이에 그가 내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 마음을 정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춘 첫날부터 네 말이 들렸고,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나 바사 왕국의 고관이 스물한 날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고관들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나는 거기에서 바사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네 백성에게 탁칠 일을 네가 알게 하려고 왔다. 이 환상은 오랜 날 후의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러한 말을 내게 하였을 때, 나는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보라, 사람과 같은 모습의 어떤 이가 내 입술을 만지니, 그때 내가 입을 열어 말하여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이르되,

오 나의 주여,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나의 근심이 내게 임하여 내게는 힘이 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주의 종이 어찌 이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이까?

나로 말하자면, 곧바로 내게는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내 안에 숨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때 사람의 모양과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만지며 나를 강하게 하고 이르되,

크게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건하라, 참으로 강건하라. 그가 내게 이같이 말하매 내가 힘을 얻고 이르되, "내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

그러나 너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이 책을 끝날 때까지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왕래할 것이며 지식이 더해지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하나는 강둑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 저쪽에 있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베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들고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일 것이며,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흠어지게 하기를 마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무엇이겠나이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이는 이 말들이 끝날 때까지 닫히고 봉해질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어지며 연단을 받으려니와,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들 중에는 깨닫는 자가 없으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부터 1,290일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며 일천삼백삼십오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네 길을 가라. 너는 쉬게 될 것이며, 끝날에 네 몫을 받게 될 것이다. 다니엘 10:1-18; 12:4-13.